

# 북한의 아동인권 침해보고서

교육시스템, 아동노동, 아동학대



PSCORE.ORG

|        |    |
|--------|----|
| 서문     | 1  |
| 교육 시스템 | 3  |
| 아동 노동  | 7  |
| 아동 학대  | 11 |
| 권고 사항  | 15 |

## 서문

북한정부의 강력한 사회 통제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세뇌 교육은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세뇌 교육은 북한 독재자들이 사회를 장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첫째로는, 김일성 가계의 삼대에 걸친 권력 강화를 가능케 했다. 둘째로는, 현 체제에 의한 경제 실패의 성과를 아이들에게까지 떠넘겨 어린이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도록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북한 아동들이 자국의 사회 시스템에 의해 착취되고 있는 것이다. 분명 사회라면 지켜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아동 인권조차 정부가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사실상 인공위성과 핵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군사적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들이 이런 공격적이고 학대적인 환경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는다는 사실은 북한 미래의 심각한 위기를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 문제는 동북아 평화 유지와 전세계적인 아동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북한 아동 인권의 현실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동안 초점을 맞추었던 주제들은 교육 시스템 (2016), 아동 노동 (2017) 그리고 아동 학대 (2018) 등이 있다.



## 교육 시스템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장 문화, 제43조

북한의 교육은 독재자에 대한 우상화, 역사 왜곡, 그리고 차별과 혐오를 바탕으로 한 선전선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재력과 배경에 의한 신분차별

극심한 신분차별이 존재하고 뇌물이 입학과 학업에 큰 영향을 주어 상류계층만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었다.

"선생님들에게 뇌물을 줘야 한다. 1회에 10~20달러 정도의 현금을 매주 내야 했다. 또 꼬마계획을 한다. '지원사업', '국가 계획', '발전소 지원사업'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생활총화 모이면 항상 다음 주에 뭔가 지원사업이 있다고 공지한다. 고기, 선물, 옷, 장갑, 양말 등 여러 가지 물건을 다양하게 요구했다."

- 김연리

### 군사식 교육

학생들은 유치원 때부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교육을 받는다. 중학교부터는 붉은청년근위대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한 달치의 군사교육을 받게 된다. 그리고 고급중학교 4~5학년이 되면 '붉은 청년근위대'에 가입해 1개월간의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AK47 소총 (자동소총)을 사용한 실탄사격훈련, 각개전투 같이 한국의 신병훈련소를 연상시키는 과정들을 학생들에게 강제한다.

"사격훈련을 포함해 1주일 동안 훈련하고 총은 3발 쏘았다. 지역마다 훈련소가 있다. 한 개 학교의 교육을 위임 받아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다. 사격, 점호, 군대식 보고, 군대식 복장, 군대식 제식, 각개전투, 철조망 통과, 목총을 들고 장애물 극복 등의 훈련을 한다."

- 김철수



### 감시와 통제

북한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말을 조심하고 경각심을 잃지 말라는 경고를 들으면서 자란다.

**"한 학급에 한 명씩은 보위부 첩자가 있다"**  
**"학교나 공공장소에서는 말을 조심해라"**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이러한 말이 사회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북한 사회에서는 감시와 통제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

학교에서 한 아이가 한국 드라마나 음악 때문에 보위부에 다녀왔다고 하면, 아이들이 그 학생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그 아이와 말 하지 않으려 하고 감시하려고 해요. 자발적으로 비판하고, 그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아이들끼리 평가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북한 사람은 누구나 보위원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 김연리

### 우상화 교육

우상화 교육은 북한체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여타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도 우상화 교육이 실시된 바 있으나 북한만큼 우상화 시스템이 전 사회적으로 공고히 구축된 사례는 찾을 수 없다.

“(우상화 교육을) 매일 듣다보니 ‘위대한 령도자 이시구나’, ‘강철의 령장 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다.”

- 황수민

“공부를 한지 오래 됐는데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세뇌교육이라는데 무서운 것 같아요,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런 교육만 주잖아요.”

- 김연리

### 폭력과 혐오 교육

학교에서 주최하는 거의 모든 운동회에는 ‘양코뱅이 미국 놈 때려죽이기 경기’가 있다. 이는 학생들이 매우 어렸을 때부터 참가 하는데 반미, 반제국주의 감정을 부추기는데 그 목표가 있다.

북한정부는 성장기 어린 아이들에게 만화 영화를 통해 혐오교육과 더불어 더 강력한 세뇌를 시킨다. ‘소년장수’, ‘다람이와 고슴도치’ 같은 북한 만화영화들은 항상 자본주의 국가들을 증오하고 배척하라고 가르친다.

생활총화는 학교나 조직생활에서 자기비판과 상호비판을 통한 공포를 심어준다. 서로를 감시하고 불신하게 만들어 사회구성원 간에 ‘협력’ 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생활총화 때 ‘나를 비판했던 아이는 나중에 나도 비판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 일주일 동안 그 아이의 행동만 주시했다.”

- 이지연





ERIC LAFFORGUE

# 아동 노동

북한의 아동들은 어린 나이부터 국가 교육 제도 하에서 그리고 그 밖에서도 각종 강제 노동으로 고통 받고 있다. 강제 노동의 유형으로는 농촌 동원, 물품수집,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집단체조에 동원되는 등 다양하다. 정치범수용소, 고아원, 그리고 구호소의 아이들은 이 밖에도 다양한 고된 노동으로 착취 당하고 있다.



ERIC LAFFORGUE



ERIC LAFFORGUE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며 적절한 교육을 받기보다 농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 농촌동원

“농촌동원”은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농장 노동을 일컫는 말이다. 예를 들어 파종, 김매기, 모내기, 영양단지 옮겨심기, 추수하기 같은 것들이다. 북한 정부는 제도권 교육 내에서 학생들을 동원해 학교와 연계된 지역 농장으로 이들을 파견한다. 농장 노동은 학교 교과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므로, 따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 대체로 일은 힘들고, 지치고, 시간도 오래 걸리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노동 강도도 강해진다.

## 물품수집

학교에 의한 연료 또는 폐지수집과 같은 사업은 북한 정부가 교사의 봉급과 교육자재를 공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시작되었다. 정부가 학생들에게 물품 수집을 명령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억압적이고도 불가피한 노동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



WONG MAYE-E / AP PHOTO

### 건설사업, 집단체조 그리고 선전선동

학생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생일과 각종 국경일에 열리는 다양한 공연에 동원 되고, 도시 기반시설이나 학교건물 건설공사 같은 위험한 각종공사에도 동원된다. 아이들은 또한 수많은 인력이 소요되기로 악명높은 북한의 집단체조 행사에 강제적으로 참여한다. 가장 유명한 북한의 아리랑 축제에서는 약 5만 명의 어린이들이 컬러 카드를 동시에 뒤집어서 애니메이션 배경을 만든다. 특히 아리랑 축제와 같은 행사를 위해서는 6-12개월간 쉬지 않고 연습해야 한다.



### 정치범 수용소 (관리소)

북한의 수감시설은 수감자의 죄목에 따라 차등화 되어 있다. 많게는 12만명의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특히 아이들에게는 무자비하게 대하지만 이들이 필수적인 노동력임을 알고 있기에 죽이지는 않는다고 한다. 관리소의 아이들은 외부 북한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아동노동에 시달리면서, 관리소 자체의 추가적인 노동이 부과된다.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깨어 있는 대부분의 시간에 할당량을 완수하도록 각종 노동을 강요당한다.



### 고아원과 구호소

아동노동의 형태는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다. 학교와 관리소에서 하는 일들이 고아원이나 구호소에서 동일하게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고아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은 엄격한 군대식의 생활환경 아래 교양원(관리자), 청년동맹 지도원, 다른 아이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시달려야 하는 환경 아래 있다. 구호소는 임시 고아원이라 볼 수 있으나 훨씬 열악한 자원으로 운영된다. 구호소에서 지내는 대다수의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꽃제비 출신이다.

북한정부는 이러한 시설들이 집 없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시설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구호소의 생활 환경은 감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더러웠고 죄수들처럼 취급받았다.  
일반인들은 아이들을 더럽다고 피했고  
구호소를 감옥처럼 생각했다.”

- 조동익



# 아동 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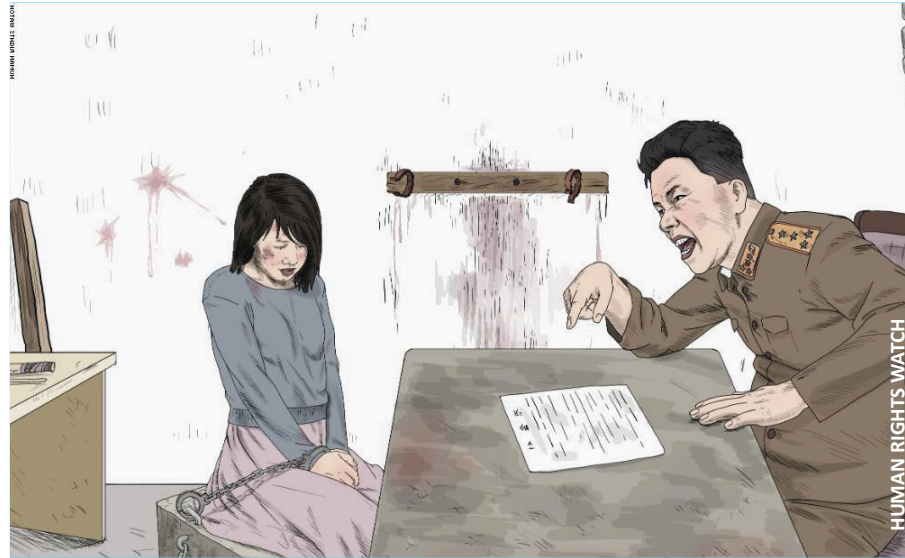
북한 아동에 대한 폭력은 유교 문화와 독재라는 복합적인 배경 때문에 독특한 형태를 띤다. 북한 아이들은 상상 이상의 폭력을 다양한 성인들로부터 당한다. **아동 학대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군인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북한도 헌법이라는 법적인 체계가 존재하기는 하나, 북한의 주민들은 이 사실조차 잘 모르고 지낸다. 따라서 폭력을 당해도 **그 폭력을 신고하거나 당한 학대에 대한 조치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폭력 사건들이 법적인 처벌 없이 계속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11

12



“중학교 때 교사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무릎으로 맞아서 입과 코에서 피가 난 적도 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교사가 아니라 학급반장이다. 일반적으로 교사가 반장을 구타해서 반장이 아이들을 더 때리도록 만든다. 반장은 아이들에게 운동장을 20바퀴 돌도록 만들고 그 후에 몽둥이로 때린다. 반장에게 대들면 교사에게 대드는 것과 같아서 반발할 수 없었다. 나는 남자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 관리소에서 구타를 자주 당했다. 교사 보다는 같은 학생들에게 구타를 당한 기억이 더 많다.”

- 한철민

## 성폭력

북한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만연해 있다. 가해자들은 학교 선생님, 행정원, 또는 아이들을 포함한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추행하는 군인들까지 다양하다.

“한 선생은 16-17세 여자 아이들을 성폭행해서 죽는 아이들이 많았다. 산에 가서 성폭행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자살하기도 한 것이다. 외부로는 사고로 죽었다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대부분 여자들이 죽다 보니 소문이 돌았다. 2-3년 사이에 5명 정도의 여자 아이들이 죽었다. 조심스러운 여자아이들이 떨어져 죽을 이유가 없었다.”

- 한철민

군대에 입대하는 여성들은 최소 7년 복무해야 하며 최소 입대 연령은 18세이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은 아동을 16세 미만으로 정의한다. 이것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UNCRC)에서 규정하는 국제적인 기준인 18세 미만과는 차이가 있다. 북한 인민군은 세계적으로 4번째로 강한 군사 집단이라고 하지만, 여성 군인 출신의 탈북자들에 의하면 군 내의 성폭력은 심각하다고 전해진다.



## 정신 폭력

아이들은 신천박물관과 같이 시각적으로 끔찍한 박물관들을 학교에서 필수 과정으로 방문하고 공개처형도 강제로 참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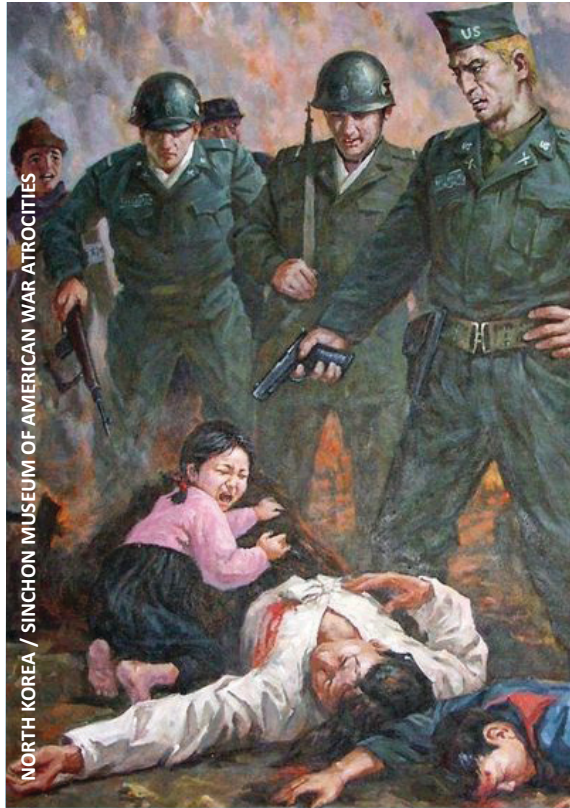
“몸이 얼어서 말이 별로 없었어요.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소름이 돋기도 하고 피 냄새가 나는 느낌이었어요.”

- 황수민

소학교 학생조차도 공개처형을 강제로 참석하게 하는데 이런 경우 평생의 큰 트라우마로 남는다.

“충격때문에 그날은 밥도 잘 못 먹었다”

- 김진주



## 방임

### 물리적 방임

수용소에서 한 가족의 표준 배급량은 한 달 기준으로 옥수수 1.8kg이다. 이것은 가족 내 2명만이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양이다.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아이들은 뱀, 새, 쥐와 같은 야생 동물 사냥의 전문가가 된다. 이것들 이외에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고아원이나 구호소에서 아이들에게 배급되는 음식은 영양가도, 포만감도 거의 없다.

### 교육적 방임

아이들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기초 교육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괴롭힘, 차별과 신체적 폭력에 노출된다.

“학교에서 힘이 약한 아이들에 대한 괴롭힘이 목인된다. 돈 없고 뺨 없고 힘 없는 아이들은 그냥 당한다. 마구 때린다. 싸대기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다. 학대 풀어 때리고 이빨 나가는 정도도 아주 흔한 일이다. 북한은 재판을 가는 일도 합의 가는 일도 없다. 가해자 입장에서 문제가 된 적이 없다.”

- 박창식

## 정신적 방임

북한 정부가 폭력의 피해자들을 보호할 환경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기관과 사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당한 끔찍한 일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이나 기구가 없다.

드물게 폭행 사실이 신고되는 경우에도 당국에서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 이것은 방임의 한 종류로 피해자에게는 정신적인 학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사후 조치의 부재로 폭력이 이어지는 것을 초래하기 때문에 2차 폭행으로도 간주할 수 있다. 또한 넓은 의미의 정신적 방임으로써,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하고 타고난 성분에서 벗어날 기회가 전혀 없는 억압적인 사회 자체가 아이들의 정상적인 정서 발달에 큰 걸림돌일 것이다.

## 의료적 방임

농촌동원이나 물품수집은 일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한다. 농사일 또는 땀감을 구하는 과정에서 낫, 호미, 곡괭이 등 위험한 도구들이 사용되고 따라서 부상이 항상 따라다니게 된다. 하지만 학생들이 정부가 조직한 노동을 수행하던 중 부상을 당하더라도, 그 심각성에 관계 없이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일하다 다치면, 뭔가 조치를 해주는 건 없고 그냥 집에 보낸다. 집에 가서 된장 바른다. 출혈을 멈추게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의학적 지식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냥 옛날부터 해왔던 거니까 그렇게 한다.”

- 홍혜진



# 권고 사항

1

국제사회에 북한이 교육에 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과 규범을 따르고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과 학대를 중지하게끔 압력을 가해야 한다. 가능한 모든 기관과 단체는 유엔과 국제 사회에 북한의 아동 인권침해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야 한다.

2

모든 회원국들은 북한에 대한 해외 원조를 북한이 비준한 국제법들을 따르고 있을 시에만 진행해야 한다. 북한 외부의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국제 기준을 따르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함께 참여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과정과 평가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 모든 진행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경과는 숨김없이 외부에 알려져야 한다.

3

시민 사회를 포함한 국제 커뮤니티는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알려야 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이 북한을 옹호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핵심 계층의 인류에 대한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로 송치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사)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52번지  
어워시 예다인오피스텔 지하1층  
전화: 02-6497-5035 (5770)  
이메일: [pscore@pscore.org](mailto:pscore@pscore.org)

북한의 다양한 인권상황을 알리고자  
증언집, 영화, 다큐멘터리, 각종 영상들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에서 참조 바랍니다  
[www.pscore.org/newest/resources](http://www.pscore.org/newest/resources)

